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37-60, 202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수집 활성화 방안: 전주 시민기록관의 기록물 수집공모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Activation of Acquiring Private Records Using Citizen Participatory Contest: A Case Study on the Contest Organized by Jeonju Citizens Archives

김영선(YoungSeon Kim)[1], 오효정(Hyo-Jung Oh)[2], 이정은(Jung-eun Lee)[3]

E-mail: dudtjs1227@naver.com, ohj@jbnu.ac.kr, jungeun.lee@jbnu.ac.kr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2]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3]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 후 연구원

OPEN ACCESS

논문접수 2021-07-19
최초심사 2021-07-21
게재확정 2021-07-27

ORCID
YoungSeon Kim
https://orcid.org/0000-0002-4795-478X
Hyo-Jung Oh
https://orcid.org/0000-0001-8067-2832
Jung-eun Lee
https://orcid.org/0000-0003-2631-0245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9S1A5B8099507).

## 초 록

최근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바, 대표적 방법론으로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모전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꾸준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ovided a basis for the procurement of private records from local archives. According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promptly trying to gather these private records through various ways, and a representative methodology of such is a contest for acquiring recor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much this contest contributes to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operation. As an example of this study, Jeonju Citizens Archives, which conducted the contest more than ten times, was selec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test for acquiring records and improvement plans for activation were presented.

Keywords: 민간기록물, 기록물 수집공모전, 시민참여형 공모전
Private Records, Contest for Acquiring Records, Citizen Participatory Contest



www.kci.go.kr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록관리 분야는 공공의 영역에서 점차 벗어나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 기록원, 경남 기록원 등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이론적 그늘에서 논의되던 지방 민간기록물 관리가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더불어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민간기록물도 포함한다(최정은, 2009, 14). 지방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과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지역의 모습이나 생활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각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의 경우, 지역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애향심 고취와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역민에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등 그 가치는 점점 증대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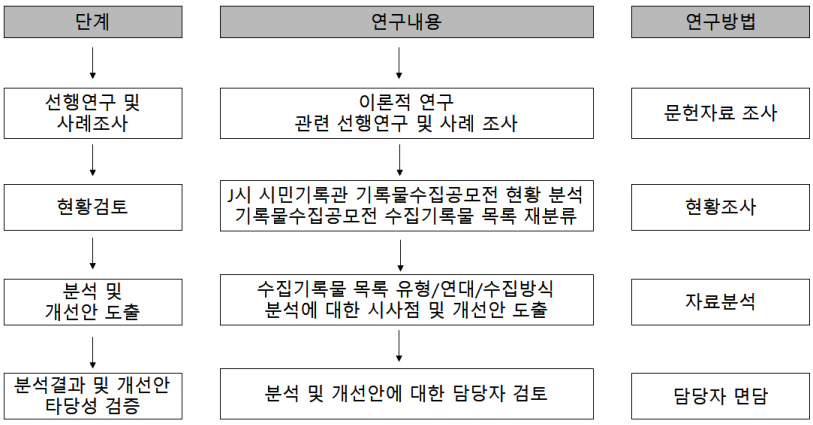
이러한 지방 민간기록물이 가지는 가치에도 이제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영역의 기록물관리에 초점이 있었으며,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거니와 관련한 법령도 부재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개정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제46조 2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제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 수집 방법으로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활용하고 있다.

공모전이란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국립국어원)”를 말하며, 주로 기업체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나 소비자들을 기업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김윤희, 2017, 591). 이 개념을 기록물 수집공모전에 대비해 보면, 기록물 수집공모전은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록물 수집활동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이 실질적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실제 공모전을 다년간 운영한 사례를 선정, 운영현황 및 입수된 기록물 분석을 통하여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민간기록물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료조사는 문헌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 중 2016년부터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시민기록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시민기록관의 기관 운영현황 및 공모전 개최 이력 등 기초분석을 통해 연구 범위를 수립하였다. 이후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1,787건(5,107점)의 기록물 목록을 검토,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분류한 결과, 총 2,057건의 목록을 재편철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셋째, 기록물 유형 및 생산연대, 수집 방법의 관점에서 수집기록물 특성을 파악하고 각 회차의 공모전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기록관 담당자와의 1차 서면 검토 및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그림 1〉 연구절차 및 방법

## 1.3 선행연구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공과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이 수집의 주체가 된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나(2009)는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수립 지침(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민간기록물 수집 시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 중심의 시점에서 민간기록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초기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김혜린(2012)은 수원지역의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수원시에서 보유한 민간기록물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지역 민간기록물 수집의 문제점을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한계, 프로세스의 미비, 시스템의 부재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인동(2014)은 민간영역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문제점을 수집기준 및 체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이 주체가 된 민간기록물 수집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주관(2012)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록물 수집활동을 분석하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아카이브 구축 초기부터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국내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수집의 방법론적 한계, 자료의 보존에 대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2015)는 비슷한 유형과 주제를 가진 교회 기록물에 관해 연구하였다. 국내 교회 기록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집활동이 일관되고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각 교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수집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조직 특성에 따른 기록물의 특징 및 유형을 분석하고, 영락교회 기록관을 사례로 수집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의 수집정책 개발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교회 기록물 수집 시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김유선과 이명규(2018)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연구하였다. 그 사례로 함평사건 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유형과 생산시기 별 특성을 고려한 분류기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과 생산시기를 분석하여 소장 기록물에 적합한 분류기준표를 제시하였다. 실제 기록물의 목록을 기반으로 소장 기록물의 특성을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기는 하나 연구의 결과가 분류기준표의 제시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손동유(2020)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주체를 기업, 정당, 문화재단, 문화원,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로 구분하고, 주체들의 예시를 통해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아카이빙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한 소장공간의 확보,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보장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상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미미하였으며, 수집 방법론을 검증한 연구가 없었다. 특히,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는 공모전 방식의 기록물 수집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시 시민기록관에서 진행한 기록물 수집공모전 현황과, 수집기록물 분석을 통해 공모전 운영 측면과 공모전 활성화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기록물 수집공모전

### 2.1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수집공모전 운영 현황

2019년 12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당위성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순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증을 요청하는 기증 캠페인 형식과 일정 이상의 보상을 두고 기록물 기증을 유도하는 공모전 형식, 기록물수집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의 일환으로 수집을 맡기는 프로젝트 형식을 꼽을 수 있다. 웹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중 기증 캠페인 형식과 공모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 수집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표 1> 참조).

〈표 1〉 지방자치단체별 민간기록물 수집 방안

| 구분 | 진행상황(건) | 민간기록물 수집 방안 별 대표적 사업 예시(시행연도) |
|---|---|---|
| 기증 캠페인 | 36 | - 영월군 아카이브 조성 기증 캠페인(2021)<br>- 괴산군 민간기록물 수집(2021)<br>- 제주시 민간 역사 기록 수집(2020)<br>- 영동군 민간기록물 수집(2019)<br>- 옥천군 대청댐 수몰마을 민간기록물 수집(2019)<br>- 문경시 역사찾기공모전(2017) |
| 공모전 | 32 | - 전주시 기록물수집공모전(2016~2021)<br>- 파주시 기록물수집공모전(2019~2020)<br>- 고양시 시민기록물수집공모전(2021)<br>- 청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2018) |
| 프로젝트 | 10 | - 경상남도 민간기록아카이브 사업(2021)<br>- 당진군 경관기록단(2021)<br>- 화성시 마을기록단(2020)<br>- 서울시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2019)<br>- 횡성군 안흥찐빵마을기록화(2016) |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기증 캠페인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그 방법이 단순하고 공모전 기증자의 의지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방식에 비해 수동적인 면이 강하다.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함께 수집하고자 하는 주제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공모전의 형태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기록물 수집공모전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별 수집기록물 공모전 개최 현황

| 지역 | | 공모전명 | 진행상황(회차) | 시행연도 |
|---|---|---|---|---|
| 특별시 | 서울 | 옛 난지도 민간기록 수집공모전 | 1 | 2020 |
| | |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1 |
| | | 동대문구 민간기록물 공모전 | 1 | 2021 |
| | | 학교 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9 |
| | | 용산공원 아카이브 프로젝트 사진 공모전 | 1 | 2020 |
| | | 남산공원 옛 사진 수집공모전 | 1 | 2020 |
| 광역시 | 대구 |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 | 1 | 2013 |
| | 대전 | '대전을 담다' 사진기록공모전 | 1 | 2015 |
| | 부산 | 금정 역사기록 찾기 수집공모전 | 1 | 2018 |
| | 인천 | 인천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7 |
| | | '미추홀의 길' 민간지역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1 |
| 도 | 전라북도 | **전라북도 기록 수집공모전** | 3 | 2018-2020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정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9 |
| | | 경남 사진영상 공모전 | 1 | 2021 |
| 시 | 고양 | 시민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1 |
| | 파주 | **파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 2 | 2019-2020 |
| | 하남 | 하남 역사사진 공모전 | 1 | 2019 |
| | 청주 | 청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8 |
| | 충주 | 제98회 전국체전 사진/영상기록 공모전 | 1 | 2017 |
| | 문경 | 문경 역사찾기 공모전 | 1 | 2017 |
| | 상주 | 상주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 | 1 | 2021 |
| | 영천 | 영천 역사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1 |
| | 창원 | 부마항쟁 민간기록물찾기 공모전 | 1 | 2020 |
| | 김제 | 김제 시민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0 |
| | 익산 | 익산-이리 근현대 기록물 시민 공모전 | 1 | 2018 |
| | 전주 |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 10 | 2016-2021 |
| | | 서학동 예술마을 기록물 공모전 | 1 | 2019 |
| | 순천 | 동탄 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20 |
| 군 | 영월 | 단종문화제 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6 |
| | 홍천 | 홍천군 민간기록물 공모전 | 1 | 2021 |
| | 고창 | 고창 옛 기록물 공모전 | 1 | 2019 |
| | 순창 |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1 | 2019 |

그러나 표의 진행 회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모전이 단발성으로 진행되어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수집 방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시행의 초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경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기록원의 경우 매년 기록수집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지만, 해당 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공지는 따로 게재된 것이 없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록물 공모전은 서울기록원과는 별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시행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중이다. 경남기록원의 경우에는 도정 기록물 또는 사진 수집공모전을 통해 경상남도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기록의 날을 기념한 민간기록물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기록 아카이브사업을 진행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록 수집 활동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대부분의 공모전은 2회 이상을 진행하는 곳이 드물고, 특히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2020년 제2회를 진행하는 파주시와, 제3회째를 맞은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올해 제10회를 진행하는 전주시뿐이었다. 이에 가장 꾸준하게 공모전 형식을 통해 민간기록물을 수집해 온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2 전주 시민기록관 개요

전주시는 2016년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2016년 이후로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수집된 기록물을 보관할만한 마땅한 공간은 없었다. 그러다 구도심의 옛 보훈회관 건물이 이전하면서 유휴 공간의 활용이 논의되었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2019년 12월에 '시민기록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청의 총무팀에서 기증자별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돼 오던 수집기록물이 비로소 보존 시설을 갖춘 서고로 들어오게 되었다.

시민기록관의 운영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인력이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아직까지 없다. 업무는 시민기록물 수집 관리 총괄, 시민기록관 제반 업무 추진, 시민기록관 안내 등 3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진행하는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외의 이용자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시공간으로는 '보이는 수장고'와 실감형 기록콘텐츠를 구현한 미디어 실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수장고'란 수장고의 벽 대신에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수장고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형태를 말한다. 실감형 미디어 실에서는 1963년 건축된 전주종합경기장 홀로그램과 건설 과정을 기록사진으로 상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1층 벽면에는 기록물을 기증한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증자의 벽'이 있어 기증자를 예우하고 있다.

현재 시민기록관은 별도의 웹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수집기록물의 정보와 사진은 시청 홈페이지의 하위에 존재하고 있어 시민기록관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면, 옛 구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도 문제없이 방문할 수 있다. 전주 시민기록관은 '시민의 삶을 기억하는 도시, 전주를 담는 기록의 보물창고'라는 모토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활용을 목표로 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전주시 블로그, 2019.12.20).

## 2.3 시민기록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

기록물 수집공모전은 첫해 1회를 제외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2회씩 진행하고 있다(<표 3> 참조). 처음에는 전주시청 총무과 기록물 관리팀에서 접수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시민기록관의 독립 개관으로 현재 공모전과 관련한 업무는 시민기록관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다.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및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매회 진행되는 수집공모전의 주제는 이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표 3〉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현황

| 회차 | 진행일자 | 생산시기 | 주제 | 수상<br>(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수집<br>기록물건(점) |
|---|---|---|---|---|---|
| 1회 | 2016.10.24~<br>2016.11.23 | 조선시대~1960년대 이전 | 전주, 천년의 기록을 찾습니다 | 대상(1명) 100만원<br>최우수상(1명) 50만원<br>우수상(5명) 30만원<br>장려상(20명) 10만원<br>참가상(100명) 기념품증정 | 143건<br>(295점) |
| 2회 | 2017.05.15~<br>2017.06.14 | 1900년 전후~1980년대 | 전주, 천년의 기록을 찾습니다 | 꽃심상(1명) 100만원<br>대동상(1명) 50만원<br>풍류상(5명) 20만원<br>올곧음상(15명) 10만원<br>참신상 (20명) 5만원 | 199건<br>(1,200점) |
| 3회 | 2017.09.20~<br>2017.10.31 | 1960년대 전후~현재 | 전주 종합경기장의<br>기록을 찾습니다 | 꽃심상(1명) 50만원<br>대동상(1명) 30만원<br>풍류상(5명) 10만원<br>올곧음상(30명) 5만원<br>특별상(1명) 50만원<br>우수상(1명) 30만원<br>장려상 (14명) 5만원 | 98건<br>(496점) |
| 4회 | 2018.02.21~<br>2018.05.03 | 1919년 3.1운동<br>1900년대 전후~현재 | 전주, 천년의 기록을 찾습니다<br>- 3.1운동 그날의 함성과<br>정신을 기록으로 | 꽃심상(2명) 50만원<br>대동상(4명) 30만원<br>풍류상(10명) 15만원<br>올곧음(35명) 5만원 | 443건<br>(843점) |
| 5회 | 2018.09.12~<br>2018.10.31 | 1910년대 이후 | 전주 축제의 기록<br>- 당신의 기억 속 전주의<br>축제를 찾습니다 | 꽃심상(1명) 50만원<br>특별상(1명) 50만원<br>대동상(5명) 30만원<br>풍류상(10명) 15만원<br>올곧음(15명) 10만원<br>참신상(00명) 5만원 | 324건<br>(793점) |
| 6회 | 2019.03.20~<br>2019.05.24 | 1980년대 이전 | 시민의 삶 속 종교문화<br>기록을 찾습니다 | 꽃심상(2명) 50만원<br>대동상(5명) 30만원<br>풍류상(10명) 15만원<br>올곧음(20명) 5만원 | 270건<br>(609점) |
| 7회 | 2019.09.09~<br>2019.10.31 | 2000년대 이전 | 전주의 역사가 담긴<br>출판·인쇄물을 찾습니다 | 꽃심상(2명) 50만원<br>대동상(5명) 30만원<br>풍류상(10명) 15만원<br>올곧음(1명) 10만원<br>참신상(20명 내외) 5만원 | 179건<br>(254점) |
| 8회 | 2020.03.16~<br>2020.05.15 | 1900~1999년 | 당신의 앨범 속 '전주'를<br>찾습니다 | 공모 접수된 자료의 가치 평가에<br>따라 최저 5만원~최대 50만원<br>까지 기증(기탁)보상금 지급 | 297건<br>(475점) |
| 9회 | 2020.09.01~<br>2020.10.16 | 2000년 이전 | 전주 유교문화 기록<br>- 향교, 서원을 비롯한 전주의<br>유교 문화 기록을 찾습니다 | 위와 동일 | 104건<br>(142점) |
| 10회 | 2021.04.01~<br>2021.09.30 | 2000년 이전 | 전주의 시장<br>- 상업·유통 관련 기록물을<br>찾습니다 | 위와 동일 | (진행중) |
| | | | | 수집기록물 합계 | 2,057건 |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시행 초기에는 전주 관련 근현대 기록물 수집을 목표로 특별한 주제 없이 진행되었으나, 제3회를 기점으로 기획주제와 공통주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물 평가를 통한 수상 구분에도 적용된다. 공모전의 수집 기간은 평균 2개월 내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집 기간이 끝나면 두 차례의 평가 절차를 거친다. 제1차 평가는 6인 이내로 구성된 감정평가단이 진행하고, 제2차 평가에서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평가에 따른다. 평가를 거쳐 우수한 기록물로 인정될 때에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데, 부상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전에 대한 홍보는 주로 시청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지역 신문사를 통한 언론 홍보, 가두 현수막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기록물 수집공모전 포스터 예시

<표 3>과 <그림 2>는 현재까지 진행된 전주시의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현황 및 관련 안내 포스터이며, 이제까지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 목록을 입수, 재편절한 결과, 2,057건, 총 5,107점으로 파악되었다.

## 3. 시민기록관의 기록물 수집현황 분석

### 3.1 수집기록물 분석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에서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해야 하며(조례 제11조 제①항),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조례 제11조 제②항). 이에 따라 기록물의 등록은 기록물 유형에 따라 건별 점 단위로 등록해야 하나, 민간기록물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엑셀을 통해 기록물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시민기록관으로부터 입수한 수집기록물 목록을 살펴보면, 유형이 다른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유형 하나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한 차례의 공모전을 통해 평균 220건(평균 560점)의 기록물이 수집되다 보니, 기록물의 자세한 검토가 어렵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이기도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 명의 기증자가 동일한 주제의 여러 유형을 기증하는 경우는 대표 유형만 등록하고, 나머지 유형의 기록물은 메모로 따로 관리하거나 하여 기록물 유형에 대한 오분류 및 일관성 부재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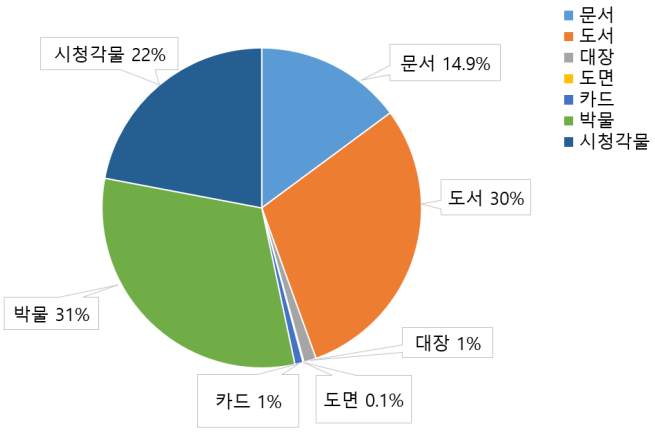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수집기록물 세부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건으로 등록된 다른 유형의 기록물들을 해당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건으로 해체, 개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기록물 유형 재분류를 수행하였다. 시민기록관은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다시 하위에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범주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시청각류의 세부유형은 '사진, 이미지 사진, 사진파일, 이미지파일' 등이 있었고, 문서류의 경우 '고문서, 문서, 인쇄물, 편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에 연구의 분석을 위해 세부 유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55개의 세부 유형으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물 유형 오분류 항목을 보정하였다. 예를 들면 제3회에서 수집된 기록물 중 기록물 명이 "○○공업기술학교 정근 상장(1954년)"은 기타 박물류, 상세유형은 상장으로 분류된 반면, 제4회에서는 "○○완산초등학교 상장(정근)" 기록물의 유형이 문서류, 상세 유형은 인쇄물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통일시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상기한 정제 작업을 통해 초기 입수한 1,787건의 목록을 2,057건(5,107점)으로 정비하여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 3.1.1 유형 분석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 제 2조에 명시된 민간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총 7가지로, 이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제시하는 7개의 기록물 유형을 대부분 차용하되 '전자문서' 대신에 '구술채록'을 새로운 기록물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기록관의 수집기록물의 분류는 '구술채록'이 아닌 '박물'을 유형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었다.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그림 3>과 같은데, 박물 유형이 전체의 31%(644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도서가 30%(609건), 시청각 유형이 22%(453건), 문서 유형이 14.9%(306건)의 순으로 박물, 도서, 시청각물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 기록물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제시하는 기록물관리 표준(NAK 11-1:2021(v.1.2))에서는 시청각 기록물과 박물, 그리고 도서 중 간행물을 특수유형 기록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기록관의 공모전 수집기록물 유형은 일반 문서 유형보다는 특수유형의 기록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수집기록물 유형 분석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각 기록물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물류는 세부 유형을 16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홍보물로써 222건(390점)이었다. 이는 박물 유형 전체의 34%에 해당된다. 홍보물은 제4회 공모전을 통해 121건이 수집되었는데 기록물 명을 살펴볼 때, 미술관의 전시 팜플릿이 다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상・훈장류 92건, 생활용품 85건, 기념품 56건, 인쇄물 42건, 필기용품 24건, 유물 21건, 지도 21건, 포장용품 20건, 화폐 13건, 편지/일기 12건, 스크랩 9건, 입장권/탑승권 8건, 복권/채권 8건, 의류 6건, 표식류 3건이 있다.

둘째, 도서의 세부 유형은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간행물, 정기간행물, 일반도서, 교과서, 도록, 족보가 해당된다. 이 중 간행물과 정기간행물이 각각 44%(266건), 37%(224건)로 도서 유형 전체의 81%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일반도서(74건), 족보(17건), 도록(16건), 교과서(12건)의 순이었다. 간행물과 정기간행물은 제4회 공모전에서 102건, 제6회 공모전에서 117건이 입수되었다. 제4회 공모전의 기록물 목록을 분석해 보면 해당 회차에서 제시한 공모전 주제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나, 제6차(주제: 종교기록)에서 입수된 117건의 기록물 중에 약 85건은 교회 또는 성당, 증산교와 관련한 도서로써 해당 주제와 일치하였다.

셋째, 시청각물 유형은 총 453건이 수집되었으며, 11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사진이 75%(338건)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앨범이 19%(81건), 엽서가 3%(14건)이였으며, 나머지는 각각 1%대로 CD/DVD가 13건, LP가 6건, 비디오 3건, 필름 3건, 포스터 2건, 카세트테이프 1건, 엽서 집 1건, 필름 집 1건 등으로 시청각물 유형 전체의 7%에 그쳤다.

넷째, 문서 유형은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1건은 상세 유형을 '미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기록물 목록을 통해 확인하면, 총 36점의 기록물로 기록물 명에는 "일제강점기 문서(영수증, 매매문서, 우편물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부제목으로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서신, 전북일보 영수증, 여행목적 증명서, 전주산업조합,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접수증"이었다. 문서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신문(59건)과 증서(57건)가 각각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지표는 17%(52건), 일반문서 15%(45건), 공문서 8%(24건), 일람표 6%(20건), 영수증 6%(18건), 명세서 4%(12건), 계약서/청약서 2%(7건), 표식류 2%(6건), 채점표 2%(5건)이다.

이외 대장 유형은 금전출납부, 방명록, 명부, 전화번호부, 주소록 등이 있으며, 카드 유형은 인사기록 카드와 명함, 표식류 등이 있고, 도면은 투시도 1건과 평면도 1건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이상 언급한 기록물 세부 유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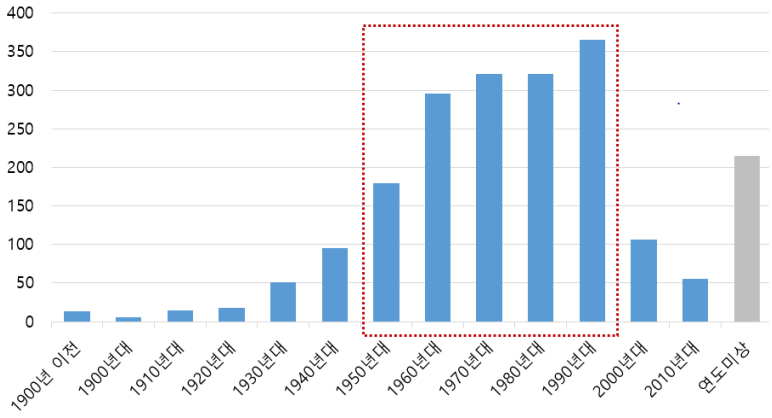
〈표 4〉 수집기록물의 유형 관리 현황

| 구분 | 세부 유형 | | | |
|---|---|---|---|---|
| | 유형 개수 | 유형 | 상위유형 1, 2위(*) 비율 | 전체유형 비율 |
| 박물 | 17 | 홍보물*, 상・훈장류*, 생활용품, 기념품, 인쇄물, 필기용품, 유물, 지도, 포장용품, 화폐, 편지/일기, 스크랩, 입장권/탑승권, 복권/채권, 의류, 표식류, 상세유형 미상 | 48% | 31.3% |
| 도서 | 6 | 간행물*, 정기간행물*, 일반도서, 족보, 도록, 교과서 | 81% | 29.6% |
| 시청각물 | 11 | 사진*, 앨범*, 엽서, LP, CD/DVD, 비디오, 필름, 포스터, 카세트테이프, 엽서집, 필름집 | 93% | 22% |
| 문서 | 12 | 신문*, 증서*, 통지표, 일반문서, 공문서, 일람표, 영수증, 명세서, 계약서/청약서, 표식류, 채점표, 상세유형 미상 | 38% | 14.9% |
| 대장 | 4 | 명부*, 금전출납부*, 전화번호부, 주소록, 방명록 | 65% | 1.3% |
| 카드 | 3 | 표식류*, 명함*, 인사기록카드 | 94% | 0.8% |
| 도면 | 2 | 투시도*, 평면도* | 100% | 0.1% |
| | | | 합계 | 100% |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 3.1.2 생산연대 분석

본 절에서는 수집된 기록물의 연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집기록물의 연대 분석은 분절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차후 공모전의 기획에 있어 결락 보충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카드'를 통해 1차적으로 관리되는데, 이 카드에는 기록물의 생산기간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기증자가 기록물의 생산연도를 정확히 알 때에는 해당연도를 기입하고, 생산연도가 부정확하다는 의사를 밝힐 때에는 기록물의 연대를 유추하거나, 기증자의 실증을 바탕으로 생산기간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수집된 기록물 중 215건의 기록물은 생산 시기를 알 수 없어 "연대 미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전체 2,057건 중 연대 미상 21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42건을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수집기록물 생산연대 분석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모전 수집기록물은 1950~1990년의 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집기록물의 72%(1,482건)에 달하고 있다. 이 외 1950년대 이전의 기록물은 9.6%(198건), 2000년대 이후 기록물은 18.3%(377건)로 1950년 이전의 기록물이 시민기록관으로 입수되는 일은 빈번하지 않았다.

시민기록관의 정체성은 시민의 삶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모여 전주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전주시 홈페이지, 2019.12.10). 그렇다면 전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의 생애주기와 수집된 기록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1941년에서 1950년 사이에 출생한 현재의 70세 연령의 시민은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일반적으로 가장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경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80세 연령의 시민은 1950년에서 1980년대가 생애주기 측면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생애주기라는 관점에서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특별한 특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기록물의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시민기록'이 아닌 '마을 아카이브'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하여 수집된 기록물의 경우라면, 기록물의 생산연대가 <그림 4>와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기록관이 표방하는 '시민의 기록'은 시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시민기록관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주요 연령대가 70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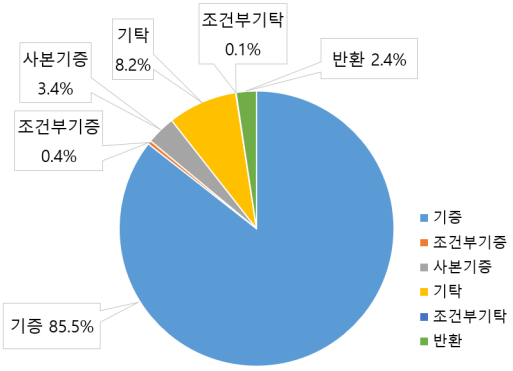
〈표 5〉 시민의 생애주기와 수집기록물 생산연대 비교

| 출생년도(연령대) | 1920년대 | 1930년대 | 1940년대 | 195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 1921~1930년도(90대)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1931~1940년도(80대) |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 1941~1950년도(70대) | |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1951~1960년도(60대) | | |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1961~1970년도(50대) | | | |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 1971~1980년도(40대) | | | | | | 출생 | 10대 | 20대 | 30대 |

### 3.1.3 수집 방법 분석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 제6조에서는 전주시의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수집에 있어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제6조 제1항),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제6조 제2항)을 취할 수 있다. 시민기록관의 수집기록물 수집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기증, 기탁, 사본기증, 반환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증은 다시 일반기증과 조건부 기증, 기탁은 일반기탁과 조건부 기탁, 반환은 일반 반환과 기탁 후 반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례의 제2조와 제6조에서는 '기탁'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고, '위탁'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 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고,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은 '기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는 수집 방법에 따른 분포를 도식화한 것으로, 전체 수집기록물 중 85.9%(1,839건)는 기증 및 조건부 기증으로 수집되었다. 나머지는 기탁과 조건부 기탁으로 8.2%(169건), 사본기증은 3.4%(70건)로 수집되었으며, 기탁되었다가 반환된 기록물의 건수도 49건(2.4%)이 있었다.




〈그림 5〉 수집기록물 수집 방법 분석

수집기록물과 수집 방법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기탁 방법으로 수집된 169건의 기록물을 분석하였다. 기증이 가장 일반적인 수집 방법인 반면, 기탁 기록물은 기증자가 소유권 이전을 꺼리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들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탁 기록물의 세부 유형 분석 결과, 도서가 89건, 시청각물이 44건, 문서가 17건, 박물이 15건, 대장이 2건, 도면이 1건, 카드가 1건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그림 3>에서 보이는 일반적 기록물 유형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특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반면, 기록물의 생산연대를 살펴보면, 1900~1940년대가 22건, 1950년대가 21건, 1960년대가 33건, 1970년대가 40건이었으며 연대 미상으로 분류된 23건에 역시 기록물 명으로 유추해 볼 때 1970년대 이전의 기록이었다. 즉, 기탁 기록물의 82%가 1970년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대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물의 생산연대가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록물의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시켜준다.

기록관에 기증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기록물은 총 49건이었는데, 반환된 기록물의 특징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증자 중에는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통해 자신이 소장한 기록물의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일단 기증으로 기록물을 접수한 후, 최종적으로 시상과 함께 공모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기증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모전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는 이를 '기증 → 반환'의 프로세스로 간주하였으나, 제6회 이후에는 '기탁 → 반환'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본기증은 총 70건으로 이를 기록물 유형으로 분류하면, 사진이 58건, 상・훈장류가 7건, 문서가 5건이었다. 공모전 개최의 취지는 원본 기록물 수집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부적으로는 사본기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기증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기증자는 사본 사진이더라도 본인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생각하고 공모전에 참여 의사를 밝히세요. 공모전의 취지가 우리 기록관을 알리고,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인데, 참여하겠다고 가져오는 사본을 그냥 돌려보내기는 힘들어요."

이러한 경우는 사본기증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슷한 기록물이 공모전으로 출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담당자 역시 동종 또는 동일 주제의 기록물이 수집되는 것에 대해 향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보존서고 등에 여유가 있고, 수집된 기록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후 수집기록물의 양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평가를 통한 기록물의 폐기나 다시 기증자에게 반환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공모전을 통해 기록물이 기증되어 시민기록관에 기록물의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몇몇 기증자들은 자신이 기증한 기록물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 3.1.4 수상 방식 분석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수상과 부상을 수여하는 방식은 여타 분야의 공모전에서 일반적으로 기획되는 방법의 하나이다. 전주시 역시 공모전의 참여자에게 수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었는데, <표 3>에서 보이듯이 수상 방식과 공모전 수집률과의 상관성은 미미해 보인다. 전주시는 공모전에 출품된 기록물의 평가를 통해 기록물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공모전에서는 제1회와 제2회 수상 금액이 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회 상위 3등급(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내에 해당하는 수상자는 7명 이내였다. 이는 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의 수상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회차가 진행될수록 상위 등급에 대한 수상 인원이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수상 금액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의 수상 방식 변화는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이 기증하는 기록물에 등급을 매기는 일은 참 어려워요. 평가위원회에서조차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증자분들은 정말 소중한 기록물을 내어주시는 것인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평가로 수상을 못하신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구요. 또 어떤 분들은 상을 타면 기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가져가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조건부 기탁으로 받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공모전의 평가는 기록물의 가치를 A~E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른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참여자에게 기증의 예우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록물이 공모전을 통해 수집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 3.2 공모전 별 연계 분석

전주시의 기록물 수집공모전은 전주시와 관련한 모든 주제와 회차별로 선정되는 기획주제로 이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기록물의 유형,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생산 시기, 기획주제가 실제 수집된 기록물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3.2.1 유형 연관성 분석

대부분의 공모전 홍보문은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집되는 기록물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유형을 접수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홍보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잠재적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기록물의 인식을 돕고자 함이며, 회차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도되었다. <표 6>과 같이, 제1회 공모전에서는 시청각류, 문서류, 박물류, 기타 박물류와 같이 4개의 분류를 소개하고 있으며, 기타 박물류는 다시 세세한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제3회 공모전 이후부터는 공모전의 주제에 따라 수집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제9회 유교문화 기록과 관련한 홍보의 경우는 그 예시가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 제1회와 제9회에서 제시하는 수집대상 기록물 유형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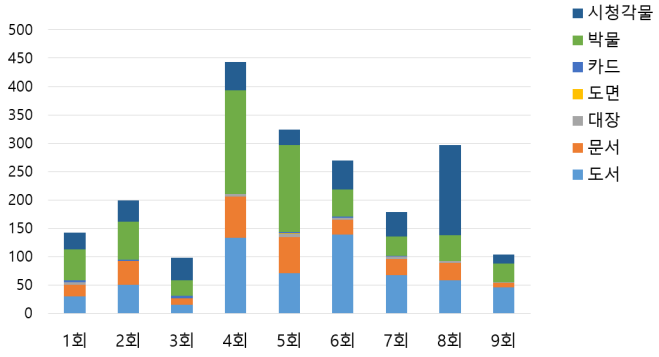
<table>
<tr><th>공모전</th><th>수집대상 유형 안내 내용</th></tr>
<tr><td>제1회<br>(천년의 기록)</td><td>• 시청각류: 인화사진, 동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기타, 오디오, 비디오 매체 등<br>• 문서류: 일기, 편지, 메모수첩, 족보, 책자, 공문서류(개인사가 보관분) 등<br>• 박물류: 생활용품, 기념품, 타자기, 시계, 필기류, 사진기 등<br>• 기타 박물류
<table>
<tr><th colspan="2">기타 박물류</th></tr>
<tr><td>인쇄품</td><td>포스터, 벽보, 리플릿, 엽서, 악보, 월급봉투, 수첩 등</td></tr>
<tr><td>예술품</td><td>병풍, 족자, 서예, 도자기, 공예품, 그림, 판화, 조각 등</td></tr>
<tr><td>의복류</td><td>상하의, 제복(유니폼), 전통의류, 운동복, 신발, 티셔츠 등</td></tr>
<tr><td>표식류</td><td>신분증, 출입증, 배지, 명함, 공무원증, 학생증</td></tr>
<tr><td>상・훈장류</td><td>훈장, 표창, 상장, 상패, 기념패, 트로피, 메달 등</td></tr>
<tr><td>우표류</td><td>우표, 우표첩, 지폐, 동전, 기념지폐, 기념주화, 보험증서, 주식권, 증권, 채권 등</td></tr>
<tr><td>도장류</td><td>관인, 압・철인, 기타도장, 도장함(인궤), 인주함 등</td></tr>
<tr><td>제례류</td><td>종교상징 기념물, 묵주・염주, 종교용품, 종교상 등</td></tr>
</table></td></tr>
<tr><td>제9회<br>(유교문화 기록)</td><td>•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사진・문서・박물류<br>• 수집예시
<table>
<tr><td>1960년대 이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관련 자료</td></tr>
<tr><td>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신축시 기금 조성, 도민성금 관련 자료</td></tr>
<tr><td>전국체전, 소년체전, 어머니 체육대회, 여대생 체육대회 등 행사기록물</td></tr>
<tr><td>덕진운동장(일제강점기), 인봉리운동장(문화촌) 등 전주의 경기장 전주</td></tr>
<tr><td>전주 역사와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자료</td></tr>
<tr><td>기타 전주와 관련하여 증거적 가치가 뛰어난 근현대 기록물</td></tr>
</table></td></tr>
</table>

기록물의 예시를 적절히 소개하는 것은 잠재적 기증자에게 기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대상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수집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잠재적 기증자의 주요 연령대가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꼽았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기증자 대부분은 거의 70세 이상이세요. 그리고 한 번 기증하셨던 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증을 해주시는 편이지요. 그분들에게 기록물을 인식시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록물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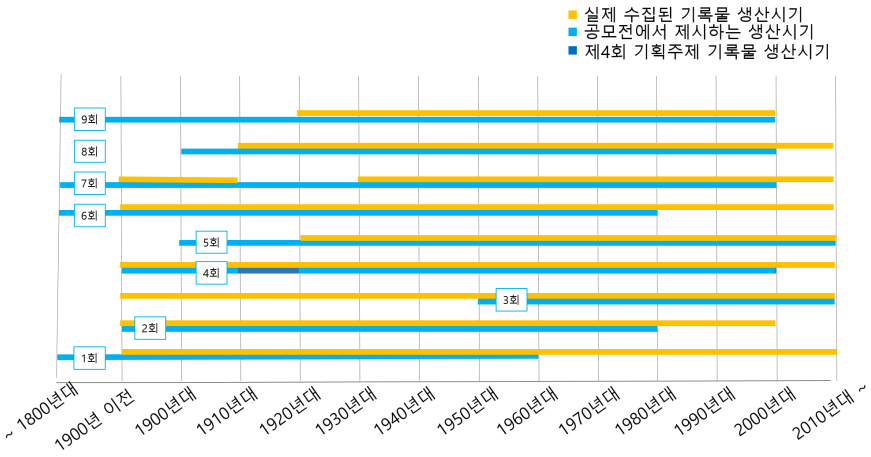
제7회와 제8회에 진행된 공모전은 '인쇄물'과 '앨범'으로 공모전의 제목을 통해 기록물 유형을 명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특징이 기록물의 수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공모전에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제7회차에 진행된 "전주의 역사가 담긴 출판·인쇄물을 찾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총 179건의 기록물 중 도서 유형이 67건 수집되어 수집된 전체 기록물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8회차는 "당신의 앨범 속 '전주'를 찾습니다"로 297건의 수집기록물 건 중 159건이 시청각류 유형으로써 전체 53%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잠재적 기증자에게 수집기록물의 기록물 유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해당 기록물의 수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공모전 별 수집기록물 유형 분석

### 3.2.2 생산연대 연관성 분석

현재까지 진행된 공모전의 홍보 안내문에는 기획주제와 함께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생산연대를 제시하고 있었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생산연대와 실제 수집된 기록물의 생산연대를 비교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공모전 별 수집대상 생산연대와 실제 수집기록물 생산연대 비교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표 3>에서와 같이 제1회 공모전의 수집기록물 생산시기는 “조선시대~1960대 이전”이었으며, 제2회 공모전은 “1900년 전후~1980년대”였다. 그러나 실제로 수집된 기록물의 생산시기를 보면, 제1회에서는 1960년 이후에서 2010년대까지 생산된 기록물도 수집되었으며, 제2회 공모전에서도 역시 1980년대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 수집현상은 제3회(1960년대 전후~현재)와 제5회(1910년대 이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대를 제시하고 기획주제로 입수되는 기록보다 일반주제로 입수되는 기록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모전을 통해 안내되는 수집기록물의 생산연도는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유의미한 정보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 3.2.3 주제 연관성 분석

공모전 기획에 있어 주제의 선정은 중요하다. 이는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대변함과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분석을 통해 수집 기록관의 컬렉션을 완성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며, 민간기록물의 수집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기록’이라는 큰 주제를 방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컬렉션 완성을 계획하기보다는 공모전마다 전주시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아직 풍부하지 못한 기록물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 주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더욱 집중적인 기록물 수집을 꾀하고 있었다. 주제의 선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실제 수집된 기록물이 각 회차에서 제시하는 공모전의 주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초창기 1, 2회는 “천 년의 기록을 찾습니다”라는 공통주제로만 진행되고 기획주제가 설정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분석방법은 기록물 목록에서 ‘기록물 명’의 키워드와 각 회차별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의 유사성을 수작업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제시된 주제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공모전은 제3회로 “종합경기장의 기록을 찾습니다”였다.

〈표 7〉 공모전 주제와 실제 수집기록물의 주제 적합도 분석

| 공모전 | 기획주제 내용 | 기획주제 적합도 |
|---|---|---|
| 1회 | 천년의 기록 | - |
| 2회 | 천년의 기록 | - |
| **3회** | **종합경기장** | **49 건 (50%)** |
| 4회 | 천년의 기록 / 3·1 운동 | 29 건 (7%) |
| 5회 | 축제 기록 | 45 건 (14%) |
| 6회 | 종교문화 기록 | 122 건 (45%) |
| 7회 | 전주 역사가 담긴 출판·인쇄물 | 56 건 (31%) |
| 8회 | 앨범 속 ‘전주’(유형: 앨범) | 135 건 (45%) |
| 9회 | 전주 유교문화 기록 | 13 건 (13%) |

제3회 공모전은 2017년 9월에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때 전주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구도심에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큰 쟁점이 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당시 공모전 주제 선정 과정에서 종합경기장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야만 하는 시의성 및 시급성이 장시간 토론되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종합경기장’은 그 핵심 키워드가 유형의 소재이면서 동시대를 사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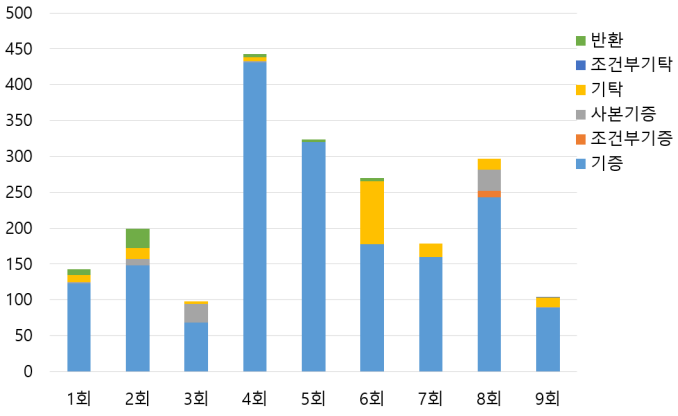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았던 공모전은 제6회에 진행된 “시민의 삶 속 종교 문화 기록을 찾습니다”로 45%의 적합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도를 보였으며, 제8회에 진행된 “당신의 앨범 속 ‘전주’를 찾습니다”가 제6회와 마찬가지로 45%의 주제 일치를 나타내었다. 반면, 제4회째 주제인 “3·1운동 그날의 함성과 정신을 기록으로”는 전체 수집기록물 443건 중 29건으로 7%의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는데, 이 경우는 주제와의 적합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3·1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이미 그 가치가 보편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기록물의 희소성 인정되어 있어서 공모전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제9회 “전주 유교문화의 기록”은 13%, 제5회 “전주 축제의 기록-당신의 기억 속 전주의 축제를 찾습니다”는 14%의 기록물이 수집됨으로써 기획주제의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비율을 보였다.

### 3.2.4 수집 방법 연관성 분석

다음은 각 회차의 공모전 주제와 수집 방법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미 <그림 5>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모전 수집기록물의 86%는 기증의 방식을 통해 시민기록관으로 입수되었으며, 9% 가량은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공모전 별로 수집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공모전 별 수집방법 분석

각 공모전을 비교해 볼 때, 제6회 공모전에서 상대적으로 기탁 방법으로 수집된 기록물이 많았다. 제6회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의 삶 속 종교문화 기록을 찾습니다”였는데, 당 회차의 수집기록물은 총 270건이었으며, 이 중 92건인 34%가 기탁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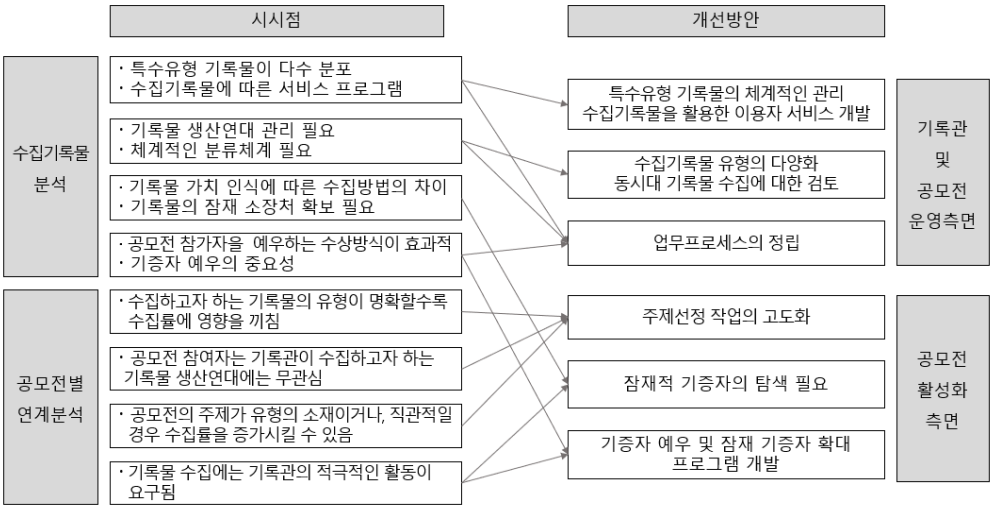
> “종교문화 기록 공모전은 관련 기록물이 정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시는 분을 통해 천주교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분을 소개받아 찾아가게 되었지요. … 한번 방문해서 기록물을 선뜻 내어주시지는 않으세요.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기탁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민기록관의 담당자는 수집기록물의 수집 방법을 기증, 기탁 등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록관의 핵심 기증자 10~15명을 통한 수집과 실제 공모전을 통해 수집되는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지역 내에서 실제 수집활동을 하는 잠재적 기증자는 매 공모전이 진행될 때마다 공모전의 주제에 맞는 기록물을 선택하여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기록관 및 공모전의 운영 측면과 공모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그림 9> 참조). 나아가 개진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9〉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안

## 4.1 기록관 및 공모전 운영 측면

### 4.1.1 특수유형 기록물의 관리 필요

시민기록관은 특수유형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모전을 통해 수집되는 기록물은 대부분 박물, 도서, 시청각 유형의 특수기록물이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집중 현상은 공모전의 회차별 분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국가기록원 원내표준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NAK 11-1:2021(v1.2)」에서는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를 위한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표준은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보존환경과 관련해서는 민간기록물이라 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2016년부터 수집되었던 전주시의 민간기록물은 기증자 명의로 된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에 시민기록관이 건립되면서 항온·항습 환경을 갖춘 서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청각 유형의 기록물이 전체의 22%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시민기록관의 기록물은 '시민의 기록'이라는 민간영역의 기록물이지만 관리는 '시'라는 공공기관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라도 특수유형 기록물에 적합한 보존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의 수집은 활용에 목적이 있다. 전주시에서는 공모전이 종료된 이후 해당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6년 제1회 수집기록물은 2017년 2월에 '전주,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청 로비에서 300점의 기록물을 전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도시의 기억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는 '경기장, 뜨겁게 울리다'라는 제목으로 제3회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종합경기장'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전주시 홈페이지, 2018.04.12). 또한 수집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매년 출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당해까지 수집된 기록물 중 일부를 기증자별로 정리하고, 기록물과 관련한 부가적 설명 및 이야기를 엮은 기록물 기증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사진 자료를 인물, 풍경, 행사 등 3가지 주제별로 나눠 개인의 추억과 전주의 시대상을 엮은 '아카이브북'을 발간하기도 하였다(김성수, 2021.06.29). 이러한 시민기록관의 일련의 활동들은 수집기록물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1.2 동시대 기록화에 대한 숙고

시민기록관의 수집정책은 동시대 기록화 문제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기록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하였으나 개관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관 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렇다 할 수집정책을 공시한 바는 없다. 대신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 제5조(수집대상) 제①항을 통해 수집정책을 엿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전주시 민간기록물 조례 제5조 제1항

| 법문 내용 |
|---|
| 제5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br>1. 전주시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br>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br>3.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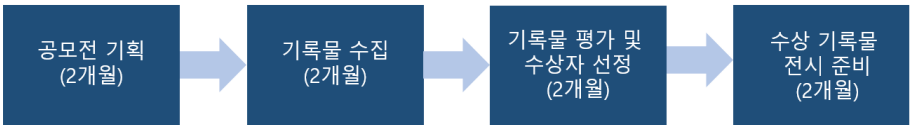
<표 3>과 같이 이제까지의 공모전 행태를 살펴보면, 주로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대의 시민적 관심과 연관된 공모전은 제4회뿐이었다. 그나마 이 공모전도 종합경기장이라는 소재가 사회적 이슈였지 동시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아니었다. 시민기록관이 작년에 개관하였다는 점, 아직도 수집기록물이 풍족하지 않아 기록물의 수량에 주안을 두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에 그 여력이 부족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향후에라도 동시대 기록화 문제가 고려된다면,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의 연령대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품질이 우수한 기록물을 현재적 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1.3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립

시민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은 효율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민간기록물 수집을 준비하는 여타 기관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시민기록관은 시 행정 조직의 한 부분으로 공공의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어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이 민간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기록물 관리 및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청에 상주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시민기록관의 업무나 전반적인 운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기록관으로 입수되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유형분류 및 등록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담당자 역시 다양한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일정 이상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시민기록관은 이제까지 공모전 주제에 대한 변화, 수집 방법의 업무처리 변화, 수상 방식의 변화 등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그림 10>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 한 결과이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그림 10〉 공모전 운영관련 업무 프로세스

그러나 담당자는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문제, 소장 기록물의 보관 방법에 관한 문제, 기록물 평가에 관한 문제 등은 여전히 업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록물의 분류체계와 서가 배치 업무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담당자는 기록물을 기증자 별 상자로 관리하면서도 시청각 유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장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기증자 별 상자 관리는 기증자가 자신의 기록물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러 오는 것에 대한 대응업무의 편리함과 이와 연관된 기증자의 예우를 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이 10회 이상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체계의 경우,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입수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생산된 것이 아닌 엑셀로 관리되는 자료였기 때문에 오류 값들이 다수 있어 시스템 도입의 시급함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었다. 다행히도 최근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기록물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분류체계는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기타 박물류 4가지의 대분류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주시 민간기록물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는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보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일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 매뉴얼이 제공된다면 각 기록관에 적합한 운영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으로 수집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제10회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시민기록관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된다면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를 참고하는 여타 기관에 예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2 공모전 활성화 측면

### 4.2.1 주제 선정 작업의 고도화

공모전의 주제는 공모전의 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기획의 단계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주제를 선정하면서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기록물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모전은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주제, 기록물의 생산시기, 기록물의 유형 그리고 수상 내용 등을 골자로 기획되고 홍보된다. <표 3>과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수집대상 기록물의 생산 시기는 실제 기증자에게는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증자 역시 본인이 기증하는 기록물의 생산 시기를 알 수 없는데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그림 4>와 같이 연도 미상의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기록물의 유형과 주제는 상관관계가 높았다. '종합경기장(제3회)', '인쇄・출판물(제7회)', '앨범(제8회) 등 유형의 소재가 명시된 경우에는 '축제(제5회)', '종교문화(제6회)', '유교문화(제9회)' 등 무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형의 소재가 제시된 공모전보다 주제와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제가 구체적이고, 특히 기록물 유형을 명시할 경우, 기증자에게 수집기록물에 대한 범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기록관이 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을 확보하고자 할 때 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2.2 잠재적 기증자의 탐색 필요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록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기록물 소장자의 탐색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시민기록관으로부터 입수한 수집기록물 기초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기증자의 이름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대신 '기록물 명' 분석을 통해 기증의 출처가 한 사람으로 유추되는 기록물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 기록물들은 기존 핵심 기증자들의 소개와 기록관의 적극적인 수집 활동에 의한 결과였다. 핵심 기증자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구성으로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및 기증자 사이의 연대도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제에 따라 관련 기록물에 대한 소장처를 파악할 경우, 업무 담당자에게 잠재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대부분 기증자와 업무 담당자와의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잠재 기증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시민기록관 기증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시민기록관 기증자의 특성

| 시민기록관 기증자의 특성 |
|---|
| 1. 기증자의 연령대는 평균 70세 이상이다. |
| 2. 한 회차에 참여하는 기증자는 보통 40~50명 이내이다. |
| 3. 지속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증자는 10명 내외이다. |
| 4.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는 기증자는 기록물 소장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앞서 3.1.2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증자의 평균 연령대는 수집기록물 생산연대의 분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모든 수집기록물이 비전자류에 해당됨이 당연하며, 사본기증 방식으로 참여한 시청각 기록물은 모두 사진 스캔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만일 동시대 기록화를 위한 주제라면, 핸드폰 및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파일이 다량일 것이다.

공모전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되지만, 실제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증자는 40~50여 명이었다. 이는 기증자 한 명이 한 건의 기록물을 기증한다기보다는 배경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건의 기록물을 한 번에 기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이라도 공모전에 참여한 기증자는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지속해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증자는 10명 내외였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의 수집가이기도 하면서 전주시의 공모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기증자 그룹이다. 한 번에 기록물을 기증하기보다는 여러 회수에 걸쳐 공모전에 적합한 기록물을 추려서 공모전에 참여한다. 공모전을 통해 수상을 경험한 기증자들은 다음 회차의 공모전이 개최될 때, 주변의 잠재 기증자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담당자에게도 기록물 소장자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기록관은 이러한 기록물의 소장정보를 통해 여러 번의 면담과 회유를 거쳐 기록물을 확보하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시민기록관의 소장 기록물은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수집되었지만, 실제는 잠재 기증자 정보의 탐색과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록관의 적극적 수집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되는 공모전의 개최는 지역 주민에게 기록물의 인식 확산 및 기록관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시민기록관은 이러한 잠재 기증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 공모전이 진행될 때마다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전과 관련한 홍보 우편물을 지속해서 발송하고 있다.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 4.2.3 기증자 예우 및 확대 프로그램 개발

시민기록관은 다양한 기증자 예우 방안과 기증자 연령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기증된 기록물의 소유권은 기록관에 있으나 기증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기증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기록물이 기록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기증자별 상자 분류는 보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시민기록관은 기록관을 건립하면서 1층 공간에 기증의 벽을 마련하고 기증자의 이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는 전시관'을 통해 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기록물이 교체될 때마다 기증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예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역대 우수 기록물 기증자를 대상으로 구술 채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증자와 관련한 간행물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분석의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증자의 날'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기존 기증자들의 초대와 잠재 기증자를 함께 초대하는 소개 마케팅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록관의 홍보 및 기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 기증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증자의 연령 확대를 위한 고심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는 이제껏 진행된 공모전의 취지가 암묵적으로는 근대적인 기록물에 치중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며, 잠재적 기증자에 대한 분석이 미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공모전 주제 선정에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선정된다면 기증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기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는 매년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영화제 일정과 맞추어 '축제 기록'과 관련한 이벤트 성 공모전을 매년 개최할 수도 있다. 담당자는 시민들이 아직도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증자에게조차도 기록물을 설명하는데 어렵다고 했다. 차후에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에는 잠재 기증자의 연령대를 확대할 만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다 다양한 시민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 론

공공기록물과 구별되는 민간기록물은 문화와 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생산된다. 민간의 영역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수집되는 기록물, 기록물의 가치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시민기록관을 사례로 선정하고, 수집공모전의 실효성 검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수집정책에 따라 수집되는 기록물의 유형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기록관의 경우는 특수유형 기록물이 다수였으나, 이는 지역의 특색과 공모전을 개최하는 지자체의 수집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모전 내용과 수집기록물의 상관성은 공모전 '주제'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록관이 원하는 기록물 컬렉션을 완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수집하고자 하는 주체와 기증자와의 연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기록물의 잠재 기증자에 대한 예측과 수집기록물의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연구는 수집정책 및 수집방안 등을 주제로 다수 진행됐으나 구체적 수집방법론과 그 결과에 관한 검증의 사례가 연구된 적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37
www.kci.go.kr

목록을 통해 공모전의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기록관은 제10회째 공모전을 진행하는 중이다. 연구의 결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소 미흡하여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사례로서의 연구 결과는 보편적인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안에 적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심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여타 기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v.1.2). NAK 11-1:2021(v.1.2).

김성수 (2021. 06. 29.).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 보듬은 전주시민기록관, 한 평 전시관・쉼터 운영. 프레시안,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90236203518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김유선, 이명규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55-17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1.155

김윤희 (2017). 공모전이 기업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12), 590-599. https://doi.org/10.5392/JKCA.2017.17.12.590

김주관 (2012).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기록학연구, 33, 85-112.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85

김혜린 (2012). 수원지역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민간기록물 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6,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안나 (2009).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2.137

이인동 (2014). 공공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기록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9호

전주시 블로그 (2019. 12. 20.). 시민의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된다! 전주시민기록관 개관식. 출처: https://blog.naver.com/jeonju_city/221743140572

전주시 홈페이지 (2018. 04. 12.). 제3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 관람객 발길 이어져. 출처: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24828330162b3264a9a2ed5&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99b360624&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8c2da08cb

전주시 홈페이지 (2019. 12. 10.). 기록의 보물창고, 전주시민기록관 개관!. 출처: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ee9f41a016eeed4e33f22ff&page=1&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99b360624&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8c2da08cb&layoutUid=&searchType=dataTitle&keyword=%EC%8B%9C%EB%AF%BC%EA%B8%B0%EB%A1%9D%EA%B4%80&categoryUid1=&categoryUid2=&cateogryUid3=

최정은 (2009).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www.kci.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na (2009). A study on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policy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graduate Schoo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Choi, Jung-eun (2009). The strategies for building online-archive of local historical records: focusing on Incheon City.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tandard for Records Center and Special Records Center(v.1.2). NAK 11-1:2021(v.1.2).

Jeonju City Blog (2019. December. 20.). Civilian records gather and become history! Jeonju Citizen Archives Opening Ceremony. Available: https://blog.naver.com/jeonju_city/221743140572

Jeonju City Homepage (2018. April. 12.). Visitors to the 3rd Jeonju Archives Exhibition continue to visit. Available: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24828330162b3264a9a2ed5&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99b360624&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8c2da08cb

Jeonju City Homepage (2019. December. 10.). The treasure trove of records, Jeonju Citizen Archive!. Available: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76ee9f41a016eeed4e33f22ff&page=1&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99b360624&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8c2da08cb&layoutUid=&searchType=dataTitle&keyword=%EC%8B%9C%EB%AF%BC%EA%B8%B0%EB%A1%9D%EA%B4%80&categoryUid1=&categoryUid2=&cateogryUid3=

Jeonju Ordinance 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Ordinance No. 3329.

Kim, Hyelin (2012). A Study on Private records management For Locality archiving in Suwon.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ngji University.

Kim, Joo-kwan (2012). A Proposal for Archives securing Community Memor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GPH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85-112.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85

Kim, Sung-Soo (2021, June 29). The history and culture of citizens are managed by Jeonju Civic Archives, the Hanpyeong Exhibition Hall, and the rest area. Pressian, Available: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90236203518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Kim, Yoon-Hee (2017). The Study of the Contest Exhibition on Corporate Image and Behavior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590-599. https://doi.org/10.5392/JKCA.2017.17.12.590

Kim, You-sun & Lee, Myounggyu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the Records of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18(1), 155-17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1.155

Lee, Eunjin, Lee, Yujin, & Youn, Eunha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for Young-nak Church's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137-16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2.137

Lee, In Dong (2014). The Research about Status of Private Records Collection from the Public Facilities and Ways of Improvement.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16661.

Sohn, Dong You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Tasks of Vitalizing Private Archives: Focused on Maeul-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6,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www.kci.go.kr